

4.26 보호시설물 : 볼라드

4.26.1 현황 및 문제점

- 장식적인 형태와 색채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.
- 불필요한 문자 및 그래픽이 표기된 사례가 많다.
- 필요 이상의 수량 및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있다.
-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경우가 있다.



그림 77. 자극적이고 장식적인 색채 및 광택재질, 유색 반사띠, 하부 보조금구 적용

4.26.2 디자인가이드라인

4.26.2.1 색채

- 가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, 고명도 색채의 사용은 지양한다.
- 나 기능적 색채(반사체) 적용 시 20~30mm의 폭으로 1~2줄 적용하며, 가급적 흰색의 반사체를 적용한다.



그림 78.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

4.26.2.2 형태

- ★ 가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.
- ★ 나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형태나 재질 등을 적용한다. 예)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다.
- ★ 다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.
- ★ 라 보도와의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도록 한다.
- ★ 마 규모는 높이 800~1000mm, 지름은 100~200mm로 한다.



그림 79. <서울우수공공디자인> 인증제품

4.26.2.3 재질

-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약간의 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.

4.26.2.4 설치

- ★ 가 사람 또는 차량 이동시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.
- ★ 나 경사면에도 수직으로 설치한다.
- 다 보행연계구간 등 보차도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지점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낮은 볼라드의 설치는 지양한다.
- ★ 라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<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: 공공공간 가이드라인>의 규정과 <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>(별표 2)을 따른다.



그림 80. <서울우수공공디자인> 인증제품

4.26.2.5 기타

- ★ <서울우수공공디자인>인증제 출품을 위해서는 <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라인>(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, 2015.9)을 반드시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.